

마태복음(福音)

제 1 장(第一章)

예수의 계보(系譜)(눅 3:23-38)

1. 아브라함의 자손(子孫)이요 다윗의 자손(子孫)인 예수 1)그리스도의 2)계보(系譜)는 이러하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또는 '나심은'
2.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兄弟)들을 낳고,
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6. 이새는 다윗 왕(王)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3)아삽을 낳고,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아사'
8. 4)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아사'
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5)아모스를 낳고, 6)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아몬'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아몬'
11. 예루살렘 주민(住民)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兄弟)들을 낳았다.
12. 예루살렘 주민(住民)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男便)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7)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17.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代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代)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열네 대(代)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8)그리스도까지 열네 대(代)이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예수의 탄생(誕生)(눅 2:1-7)

18.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約婚)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前)에, 마리아가 성령(聖靈)으로 잉태(孕胎)한 사실(事實)이 드러났다.
19. 마리아의 남편(男便) 요셉은 의(義)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約婚者)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破婚)하려 하였다.
20.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主)님의 천사(天使)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子孫)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胎中)에 있는 아기는 성령(聖靈)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9)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自己) 백성(百姓)을 그들의 죄(罪)에서 구원(救援)하실 것이다." — 예수는 '주(主)님께서 구원(救援)하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語)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어(語) 형태(形態)
22.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主)님께서 예언자(豫言者)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23. 10)"보아라, 동정녀(童貞女)가 잉태(孕胎)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翻譯)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 사 7:14(칠십인역(七十人譯))
24.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主)님의 천사(天使)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 장(第二章)

동방박사(東方博士)들이 아기에게 경배(敬拜)하러 오다

1. 헤롯 왕(王)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東方)으로부터 1)박사(博士)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 또는 '점성가(占星家)들'. 그, '마고스'
2. 말하였다. "유대인(人)의 왕(王)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東方)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敬拜)하러 왔습니다."
3. 헤롯 왕(王)은 이 말을 듣고 당황(唐惶)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唐惶)하였다.
4. 왕(王)은 백성(百姓)의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율법 교사(律法教師)들을 다 모아 놓고서, 2)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지를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5. 그들이 왕(王)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豫言者)가 이렇게 기록(記錄)하여 놓았습니다.
6. 3)'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統治者)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百姓) 이스라엘을 4)다스릴 것이다.'" — 미 5:2 또는 '먹일'
7. 그 때에 헤롯은 그 5)박사(博士)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 또는 '점성가(占星家)들'. 그, '마고스'
8.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敬拜)할 생각이요."
9. 그들은 왕(王)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東方)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引導)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10. 그들은 6)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 또는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11.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敬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寶物) 상자(箱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黃金)과 유향(乳香)과 몰약(沒藥)을 예물(禮物)로 드렸다.
12.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指示)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自己) 나라에 돌아왔다.

예수의 가족(家族)이 이집트로 피신(避身)하다

13. 7)박사(博士)들이 돌아간 뒤에, 주(主)님의 천사(天使)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

(避身)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 또는 ‘점성가(占星家)들’. 그, ‘마고스’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避身)하여,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主)님께서 예언자(豫言者)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8)“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 호 11:1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이다

16. 헤롯은 9)박사(博士)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怒)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10)박사(博士)들에게 알아 본 때를 기준(基準)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地域)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 또는 ‘점성가(占星家)들’. 그, ‘마고스’ 또는 ‘점성가(占星家)들’. 그, ‘마고스’
17. 이리하여 예언자(豫言者)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11)“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子息)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子息)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慰勞)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 렘 31:15

예수의 가족(家族)이 이집트에서 돌아오다

19. 헤롯이 죽은 뒤에, 주(主)님의 천사(天使)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20.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者)들이 죽었다.”
21.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22.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地方)의 왕(王)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에 지시(指示)를 받고, 갈릴리 지방(地方)으로 물러가서,
23. 나사렛이라는 동(洞)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豫言者)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3 장(第三章)

세례자(洗禮者) 요한의 전도(傳道)(막 1:1-8; 눅 3:1-9; 요 1:19-28)

1. 그 무렵에 1)세례자(洗禮者)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曠野)에서 선포(宣布)하여 — 또는 '침례자(浸禮者)'
2. 말하기를 "회개(悔改)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3.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豫言者)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2)"광야(曠野)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主)님의 길을 예비(豫備)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 사 40:3 (칠십인역(七十人譯))
4. 요한은 낙타(駱駝)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食物)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5.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江) 부근(附近)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6. 자기(自己)들의 죄(罪)를 자백(自白)하며, 요단 강(江)에서 그에게 3)세례(洗禮)를 받았다. — 또는 '침례(浸禮)'
7.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派) 사람과 사두개파(派) 사람들이 4)세례(洗禮)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毒蛇)의 자식(子息)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懲罰)을 피(避)하라고 일러주더냐? — 또는 '침례(浸禮)'
8. 회개(悔改)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9.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께님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祖上)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子孫)을 만드실 수 있다.
10.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悔改)시키려고 물로 5)세례(洗禮)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能力)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資格)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聖靈)과 불로 6)세례(洗禮)를 주실 것이다. — 또는 '침례(浸禮)'
12.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打作)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穀)은 곳간[穀間]에 모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예수께서 세례(洗禮)를 받으시다(막 1:9-11; 눅 3:21-22)

13. 그 때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7)세례(洗禮)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江)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 또는 '침례(浸禮)'
14.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先生)님께 8)세례(洗禮)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先生)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했다. — 또는 ‘침례(浸禮)’

15.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只今)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義)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許諾)하였다.
16. 예수께서 9)세례(洗禮)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靈)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自己)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 또는 ‘침례(浸禮)’
17.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4 장(第四章)

예수께서 시험(試驗)을 받으시다(막 1:12-13; 눅 4:1-13)

1.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聖靈)에 이끌려 광야(曠野)로 가셔서, 악마(惡魔)에게 시험(試驗)을 받으셨다.
2. 예수께서 밤낮 사십 일(四十日)을 금식(禁食)하시니, 시장(飢腸)하셨다.
3. 그런데 시험(試驗)하는 자(者)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
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4.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성경(聖經)에 기록(記錄)하기를 1)'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 신(申) 8:3
5. 그 때에 악마(惡魔)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都城)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聖殿) 꼭대기에
세우고
6.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聖經)에 기록(記錄)
하기를 2)'하나님이 너를 위(爲)하여 자기(自己) 천사(天使)들에게 명(命)하실 것이다' 그리
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 시
(詩) 91:11;12
7. 예수께서 악마(惡魔)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聖經)에 기록(記錄)하기를 3)'주(主) 너의 하
나님을 시험(試驗)하지 말아라' 하였다." — 신(申) 6:16(칠십인역(七十人譯))
8. 또다시 악마(惡魔)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山)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世上)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榮光)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9.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聖經)에 기록(記錄)하기를
4)'주(主) 너의 하나님께 경배(敬拜)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 신(申) 6:13(칠십인
역(七十人譯))
11. 이 때에 악마(惡魔)는 떠나가고, 천사(天使)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福音)을 선포(宣布)하기 시작(始作)하시다(막 1:14-15; 눅 4:14-15)

12.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13.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地域)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4. 이것은 예언자(豫言者)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5. 5)"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江) 건너편(便),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異邦) 사람들의 갈

릴리, — 사 9:1;2

16.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百姓)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17.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悔改)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宣布)하기 시작(始作)하셨다.

어부(漁父)들을 부르시다(막 1:16-20; 눅 5:1-11)

18.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 두 형제(兄弟),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간(兄弟間)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漁父)였다.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漁父)로 삼겠다.”
20.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21.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兄弟)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6)동생(同生)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낚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 그, '형제(兄弟)'
22. 그들은 곧 배와 자기(自己)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무리에게 복음(福音)을 전(傳)하시다(눅 6:17-19)

23. 7)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會堂)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8)복음(福音)을 선포(宣布)하며, 백성(百姓) 가운데서 모든 질병(疾病)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 그, '그가' 또는 '기쁜 소식(消息)'
24. 예수의 소문(所聞)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疾病)과 고통(苦痛)으로 앓는 모든 환자(患者)들과 귀신(鬼神)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癲疾病) 환자(患者)들과 중풍병(中風病) 환자(患者)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25.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江) 건너편(便)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5 장(第五章)

산상 설교(山上說教)(마 5-7)

1. 1)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山)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弟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 그, '그가'
2. 2)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 그, '그가'

복(福)이 있는 사람(눅 6:20-23)

3. "3)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福)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그, '심령(心靈)이'
4. 슬퍼하는 사람은 복(福)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慰勞)하실 것이다.
5. 온유(溫柔)한 사람은 복(福)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의(義)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福)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 자비(慈悲)한 사람은 복(福)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慈悲)롭게 대(對)하실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福)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 평화(平和)를 이루는 사람은 복(福)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自己)의 4)자녀(子女)라고 부르실 것이다. — 그, '아들들이라고'
10. 의(義)를 위(爲)하여 박해(迫害)를 받은 사람은 복(福)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侮辱)을 당(當)하고, 박해(迫害)를 받고, 5)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非難)을 받으면, 복(福)이 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터무니없는 말'이 없음
12.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賞)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豫言者)들도 이와 같이 박해(迫害)를 받았다."

소금과 빛(막 9:50; 눅 14:34-35)

13. "너희는 세상(世上)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 너희는 세상(世上)의 빛이다. 산(山)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 또 사람이 등(燈)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燈檠)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燈)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行實)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榮光)을 돌리게 하여라."

율법(律法)에 대(對)한 교훈(敎訓)

17. "내가 율법(律法)이나 예언자(豫言者)들의 말을 폐(廢)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廢)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完成)하러 왔다.
18.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天地)가 없어지기 전(前)에는 율법(律法)은 6) 일점 일획(一點一劃)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 그, '한 이오타'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誡命)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7)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誡命)을 행(行)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 또는 '폐(廢)하고'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義)가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의 의(義)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분노(忿怒)에 대(對)한 교훈(敎訓)

21.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8)'살인(殺人)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殺人)하는 사람은 재판(裁判)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 출(出) 20:13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自己) 9)형제(兄弟)나 자매(姊妹)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審判)을 받는다. 자기(自己) 10)형제(兄弟)나 자매(姊妹)에게 11)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公議會)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12)지옥(地獄)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 그, '형제(兄弟)에게'.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까닭 없이'가 첨가(添加)되어 있음 그, '형제(兄弟)에게'그,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람어(語) 라가는 욕(辱)하는 말 그, '게헨나'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祭壇)에 제물(祭物)을 드리려고 하다가, 13)네 형제(兄弟)나 자매(姊妹)가 네게 어떤 원한(怨恨)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 그, '네 형제(兄弟)'
24. 너는 그 제물(祭物)을 제단(祭壇)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14)네 형제(兄弟)나 자매(姊妹)와 화해(和解)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祭物)을 드리라. — 그, '네 형제(兄弟)'
25. 너를 고소(告訴)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法庭)으로 갈 때에는, 도중(途中)에 얼른 그와 화해(和解)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告訴)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裁判官)에게 넘겨주고, 재판관(裁判官)은 형무소 관리(刑務所官吏)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監獄)에 집어넣을 것이다.
26.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15)푼[分]까지 다 갚기 전(前)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 그, '코드란테스'

음욕(淫慾)과 간음(姦淫)

27. "16)'간음(姦淫)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 출(出)(20:14)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女子)를 보고 음욕(淫慾)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女子)를 범(犯)하였다.

29.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罪)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身體)의 한 부분(部分)을 잃는 것이, 온몸이 17)지옥(地獄)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 그, '게헨나'
30.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罪)를 짓게 하거든, 찢어서 내버려라. 신체(身體)의 한 부분(部分)을 잃는 것이, 온몸이 18)지옥(地獄)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 "그, '게헨나'

이혼(離婚)과 간음(姦淫)(마 19:9; 막 10:11-12; 눅 16:18)

31. "19)'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離婚) 증서(證書)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 신(申) 24:1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淫行)을 한 경우(境遇)를 제외(除外)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女子)를 간음(姦淫)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女子)와 결혼(結婚)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姦淫)하는 것이다."

맹세[盟誓]에 대(對)한 교훈(教訓)

33.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20)'너는 거짓 맹세[盟誓]를 하지 말아야 하고, 네가 맹세[盟誓]한 것은 그대로 주(主)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 레 19:12; 민(民) 30:2; 신(申) 23:21(칠십인역(七十人譯))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盟誓]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盟誓]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寶座)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盟誓]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板)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盟誓]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都城)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盟誓]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21)악(惡)에서 나오는 것이다." — 또는 '악(惡)한 자(者)'

보복(報復)하지 말아라(눅 6:29-30)

38. "22)'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 출(出) 21:24; 레 24:20; 신(申) 19:21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惡)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40. 너를 걸어 고소(告訴)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41.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 리(五里)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十里)를 같이 가 주어라.

42. 네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네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원수(怨讐)를 사랑하여라(눅 6:27-28; 32-36)

43. "23)'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怨讐)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 레 19:18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怨讐)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迫害)하는 사람을 위(爲)하여 기도(祈禱)하여라.

45.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24)자녀(子女)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惡)한 사람에게나 선(善)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義)로운 사람에게나 불의(不義)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 그, '아들들이'

46.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賞)을 받겠느냐? 세리(稅吏)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25)형제자매(兄弟姊妹)들에게만 인사(人事)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異邦)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 그, '형제(兄弟)들'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完全)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完全)하여라.”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6 장(第六章)

올바른 자선 행위(慈善行爲)

1.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義)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操心)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賞)을 받지 못한다.
2. 그러므로 내가 자선(慈善)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僞善者)들이 사람들에게 칭찬(稱讚)을 받으려고 회당(會堂)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喇叭)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自己)네 상(賞)을 이미 다 받았다.
3. 너는 자선(慈善)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자선 행위(慈善行爲)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祈禱)(눅 11:2-4)

5. "너희는 기도(祈禱)할 때에, 위선자(僞善者)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會堂)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祈禱)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自己)네 상(賞)을 이미 다 받았다.
6. 너는 기도(祈禱)할 때에, 골방(房)에 들어가 문(門)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祈禱)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7. 너희는 기도(祈禱)할 때에, 이방(異邦)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8. 그러므로 그들을 본(本)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求)하기 전(前)에, 너희에게 필요(必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祈禱)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0.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11. 오늘 우리에게 1)필요(必要)한 양식(糧食)을 내려 주시고, — 또는 '일용(日用)할 양식(糧食)'
12. 우리가 우리에게 2)죄(罪) 지은 사람을 용서(容恕)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3)죄(罪)를 용서(容恕)하여 주시고, — 또는 '빛진 사람의 빛을 없애 준 것 같이' 또는 '빛을 없애 주시고'
13. 우리를 4)시험(試驗)에 들지 않게 하시고, 5)악(惡)에서 구(救)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權勢)와 영광(榮光)은 영원(永遠)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또는 '시험(試驗)에 빠뜨리지 마시고' 또는 '시련(試鍊)의 때로 이끌지 마시고' 또는 '악(惡)한 자(者)에게서'
14.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容恕)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容恕)해 주실

것이다.

15.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容恕)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容恕)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올바른 금식(禁食)

16. "너희는 금식(禁食)할 때에, 위선자(僞善者)들과 같이 슬픈 기색(氣色)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禁食)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凶)하게 한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自己)네 상(賞)을 이미 받았다.
17. 너는 금식(禁食)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낮을 씻어라.
18. 그리하여 금식(禁食)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늘에 쌓은 보물(寶物)(눅 12:33-34)

19. "너희는 자기(自己)를 위(爲)하여 보물(寶物)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썩이 먹고 녹(綠)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20. 그러므로 너희를 위(爲)하여 보물(寶物)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썩이 먹고 녹(綠)이 슬어서 망(亡)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21. 너의 보물(寶物)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몸의 등(燈)불(눅 11:34-36)

22. "눈은 몸의 등(燈)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盛)하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甚)하겠느냐?”

하나님과 재물(財物)(눅 16:13)

24. "아무도 두 주인(主人)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重)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6)재물(財物)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 그, '맘몬(돈이나 부(富)를 뜻하는 셈어(語))'

근심과 걱정(눅 12:22-34)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扶持)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7)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飮食)보다 소중(所重)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所重)하지 아니하냐?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무엇을 마실까'가 없음

26. 공중(空中)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穀間]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貴)하지 아니하나?
27.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自己) 수명(壽命)을 한 순간(瞬間)인들 늘일 수 있느냐? — 또는 '제 키를 한 규빗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28.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百合花)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受苦)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榮華)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30. 오늘 있다가 내일(來日)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32.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異邦)사람들이 구(求)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必要)하다는 것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義)를 구(求)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來日)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來日) 걱정은 내일(來日)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足)하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7 장(第七章)

남을 심판(審判)하지 말아라(눅 6:37-38; 41-42)

1. "너희가 심판(審判)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審判)하지 말아라.
2. 너희가 남을 심판(審判)하는 그 심판(審判)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審判)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3. 어찌하여 너는 1)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 그, '네 형제(兄弟)'
4.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2)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 그, '네 형제(兄弟)'
5. 위선자(僞善者)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3)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 그, '네 형제(兄弟)'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珍珠)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밟고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求)하여라, 찾아라, 문(門)을 두드려라(눅 11:9-13)

7. "구(求)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門)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8. 구(求)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門)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9.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10. 생선(生鮮)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惡)해도 너희 자녀(子女)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求)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12.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待接)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待接)하여라. 이것이 율법(律法)과 예언서(豫言書)의 본(本)뜻이다."

좁은 문(門)(눅 13:24)

13. "좁은 문(門)으로 들어가거라. 멸망(滅亡)으로 이끄는 문(門)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 생명(生命)으로 이끄는 문(門)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눅 6:43-44)

15. "거짓 예언자(豫言者)들을 살피라. 그들은 양(羊)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16.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葡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無花果)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行)하는 일이 중요(重要)하다(눅 13:25-27)

21. "나더러 '주(主)님, 주(主)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行)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主)님, 주(主)님, 우리가 주(主)님의 이름으로 예언(豫言)을 하고, 주(主)님의 이름으로 귀신(鬼神)을 쫓아내고, 또 주(主)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奇蹟)을 행(行)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分明)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不法)을 행(行)하는 자(者)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盤石) 위에 지은 집(눅 6:47-49)

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行)하는 사람은, 반석(盤石) 위에다 자기(自己)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 비가 내리고, 홍수(洪水)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盤石)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行)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自己)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7. 비가 내리고, 홍수(洪水)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29.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는 달리, 권위(權威)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8 장(第八章)

나병(癩病) 환자(患者)를 깨끗하게 하시다(막 1:40-45; 눅 5:12-16)

1. 1) 예수께서 산(山)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 그, '그가'
2. 2) 나병(癩病) 환자(患者)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主)님, 하 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 나병(癩病)을 포함(包含)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惡性皮膚病)을 말함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3) 나병(癩病)이 나았다. — 나병(癩病)을 포함(包含)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惡性皮膚病)을 말함
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祭司長)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命)한 예물(禮物)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證據)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백부장(百夫長)의 종을 고치시다(눅 7:1-10; 요 4:43-54)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百夫長)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懇請)하여
6. 말하였다. "주(主)님, 내 종이 중풍(中風)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마."
8. 백부장(百夫長)이 대답(對答)하였다. "주(主)님, 나는 주(主)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일 만한 자격(資格)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9. 나도 상관(上官)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兵士)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 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10.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至今)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 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11.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東)과 서(西)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4) 앉을 것이다. — 그, '비스듬히 눕다'. 유대인(人)들이 식사(食事)할 때 가지는 자세(姿勢)
12. 그러나 이 나라의 5) 시민(市民)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또는 '상속자(相續者)들은', 그, '아들들'
13.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百夫長)에게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 다. 바로 그 시각(時刻)에 그 종이 나았다.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막 1:29-34; 눅 4:38-41)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丈母)가 열병(熱病)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15. 예수께서 그 여자(女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熱病)이 떠나가고, 그 여자(女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16.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鬼神)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鬼神)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病者)를 모두 고쳐 주셨다.
17. 이리하여 예언자(豫言者)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6)"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病弱)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疾病)을 짊어지셨다." — 사 53:4

예수를 따르려면(눅 9:57-62)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自己) 옆에 둘러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弟子)들에게 건너편(便)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19. 율법학자(律法學者)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先生)님, 나는 선생(先生)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20.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窟)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7)인자(人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 그, '사람의 아들'
21. 또 제자(弟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主)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葬禮)를 치르도록 허락(許諾)하여 주십시오."
2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葬禮)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풍랑(風浪)을 잔잔(潺潺)하게 하시다(막 4:35-41; 눅 8:22-25)

23.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弟子)들이 그를 따라갔다.
24.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風浪)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危險)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弟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主)님,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26.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潺潺)해졌다.
27.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服從)하는가?"

귀신(鬼神)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막 5:1-20; 눅 8:26-39)

28. 예수께서 건너편(便) 8)가다라 사람들의 지역(地域)에 가셨을 때에, 귀신(鬼神)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거라사' 또는 '겔게사' 또는 '가자라'
29.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當身)이 우리와 무슨 상관(相關)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前)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30.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31. 귀신(鬼神)들이 예수께 간청(懇請)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32.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命令)하시니, 귀신(鬼神)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 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 속에 빠져 죽었다.
33.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逃亡)가서, 읍내(邑內)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鬼神)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34. 온 읍내(邑內)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自己)네 지역(地域)을 떠나 달라고 간청(懇請)하였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9 장(第九章)

중풍병(中風病) 환자(患者)를 고치시다(막 2:1-12; 눅 5:17-26)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自己) 마을에 돌아오셨다.
2. 사람들이 중풍병(中風病) 환자(患者) 한 사람을, 침상(寢牀)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中風病) 환자(患者)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罪)가 용서(容恕)받았다."
3. 그런데 율법학자(律法學者)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冒瀆)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4.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 속에 악(惡)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5. '네 죄(罪)가 용서(容恕)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나?
6. 그러나 인자(人子)가 땅에서 죄(罪)를 용서(容恕)하는 권세(權勢)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中風病) 환자(患者)에게 "일어나서, 네 침상(寢牀)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서, 자기(自己) 집으로 돌아갔다.
8.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권한(權限)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榮光)을 돌렸다.

마태를 부르시다(막 2:13-17; 눅 5:27-32)

9.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稅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10. 예수께서 집에서 1)음식(飮食)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稅吏)와 죄인(罪人)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弟子)들과 2)자리를 같이 하였다. — 그, '비스듬히 눕다'. 유대인(人)들이 식사(食事)할 때 가지는 자세(姿勢)
 11. 바리새파(派)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弟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當身)네 선생(先生)은 세리(稅吏)와 죄인(罪人)과 어울려서 음식(飮食)을 드시오?"
 12.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健康)한 사람에게는 의사(醫師)가 필요(必要)하지 않으나, 병(病)든 사람에게는 필요(必要)하다.
 13. 너희는 가서 3)'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慈悲)요, 희생제물(犧牲祭物)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義人)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罪人)을 부르러 왔다."
- 호 6:6

금식(禁食) 논쟁(論爭)(막 2:18-22; 눅 5:33-39)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弟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派) 사람은 4)자주 금식(禁食)을 하는데, 왜 선생(先生)님의 제자(弟子)들은 금식(禁食)을 하지 않습니까?"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자주'가 없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婚姻)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新郎)이 자기(自己)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新郎)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 때에는 그들이 금식(禁食)할 것이다.
16. 생(生)배 조각을 낚은 옷에다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17. 새 포도주(葡萄酒)를 낚은 가죽 부대(負袋)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負袋)가 터져서, 포도주(葡萄酒)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負袋)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葡萄酒)는 새 가죽 부대(負袋)에 담아야 둘 다 보존(保存)된다."

어느 지도자(指導者)의 딸과 혈루증(血漏症)에 걸린 여자(女子)(막 5:21-43; 눅 8:40-56)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指導者)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方今)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19.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弟子)들도 뒤따라갔다.
20.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血漏症)으로 앓는 여자(女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21. 그 여자(女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22.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女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救援)하였다." 바로 그 때에 그 여자(女子)가 나왔다.
23. 예수께서 그 지도자(指導者)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少女)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25.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少女)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少女)가 벌떡 일어났다.
26. 이 소문(所聞)이 그 온 땅에 퍼졌다.

눈 먼 두 사람이 고침을 받다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 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子孫)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5)예수를 뒤따라 왔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예수를’이 없음

28.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 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主)님!” 하고 대답(對答)하였다.
29.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30.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嚴重)히 다짐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31.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所聞)을 그 온 지역(地域)에 퍼뜨렸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다

32.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鬼神)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33. 귀신(鬼神)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34. 6)그러나 바리새파(派) 사람들은 “그는 귀신(鬼神)의 두목(頭目)의 힘을 빌어서 귀신(鬼神)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34절(節)이 없음

목자(牧者) 없는 양(羊)

35.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都市)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會堂)에서 가르치며, 하늘 나라의 복음(福音)을 선포(宣布)하며, 온갖 질병(疾病)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다.
36.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牧者) 없는 양(羊)과 같이, 고생(苦生)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37. 그래서 제자(弟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秋收)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38.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秋收)하는 주인(主人)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秋收)밭으로 보내시라고 청(請)하여라.”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0 장(第十章)

예수의 열두 제자(弟子)(막 3:13-19; 눅 6:12-16)

1. 1)예수께서 열두 제자(弟子)를 부르셔서, 2)더러운 귀신(鬼神)을 제어(制御)하는 권능(權能)을 주시고, 그들이 3)더러운 귀신(鬼神)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疾病)과 온갖 허약(虛弱)함을 고치게 하셨다. — 그, '그가'또는 '악(惡)한 귀신(鬼神)'또는 '악(惡)한 귀신(鬼神)'
2. 열두 사도(使徒)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4)동생(同生)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5)동생(同生) 요한과 — 그, '형제(兄弟)'그, '형제(兄弟)'
3. 빌립과 바돌로매와 도마와 세리(稅吏)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6)다대오와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레베오' 또는 '다대오라고 부르는 레베오'
4. 7)열혈당원(熱血黨員)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 또는 '가나안 사람', 그, '카나나이오스'

열두 제자(弟子)의 전도(傳道)(막 6:7-13; 눅 9:1-6)

5. 예수께서 이들 열둘을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命)하셨다. "이방(異邦)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6. 오히려 8)길 잃은 양(羊) 떼인 이스라엘 백성(百姓)에게로 가거라. — 그, '이스라엘 집의 길 잃은 양(羊) 떼에게로'
7. 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宣布)하여라.
8. 앓는 사람을 고쳐 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9)나병(癩病) 환자(患者)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鬼神)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 나병(癩病)을 포함(包含)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惡性皮膚病)을 말함
9. 전대(纏帶)에 금화(金貨)도 은화(銀貨)도 동전(銅錢)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10. 여행용(旅行用)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自己)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11.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12.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平和)를 빈다고 인사(人事)하여라.
13. 그래서 그 집이 평화(平和)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平和)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平和)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迎接)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 버려라.

15.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審判)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박해(迫害)를 받을 것이다(막 13:9-13; 눅 21:12-17)

16.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羊)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
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純眞)해져라.
17. 사람들을 조심(操心)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法庭)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會堂)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18.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總督)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異邦) 사람 앞
에서 증언(證言)할 것이다.
19.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官家)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
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때에 지시(指示)를 받을 것이다.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靈)이시다.
21. 형제(兄弟)가 형제(兄弟)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子息)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
식(子息)이 부모(父母)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父母)를 죽일 것이다.
22.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救援)을 얻을 것이다.
23.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迫害)하거든, 저 고을로 피(避)하여라.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
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前)에 인자(人子)가 올 것이다.
24. 제자(弟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主人)보다 높지 않다.
25. 제자(弟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主人)만큼 되면, 충분(充分)하다. 그들이 집주
인(主人)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甚)하겠느
냐!"

마땅히 두려워하여야 할 분을 두려워하여라(눅 12:2-7)

26.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 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28.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靈魂)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靈魂)도
몸도 둘 다 10)지옥(地獄)에 던져서 멸망(滅亡)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 그, '게
헨나'
29. 참새 두 마리가 한 11)냥(兩)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
께서 허락(許諾) 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 그, '앗시리온'

30.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31.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貴)하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눅 12:8-9)

32.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是認)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是認)할 것이다.
33.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否認)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否認)할 것이다."

칼을 주려고 왔다(눅 12:51-53; 14:26-27)

34. "너희는 내가 세상(世上)에 평화(平和)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平和)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35. 나는, 12)사람이 자기(自己)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自己)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自己) 시(媳)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 미 7:6
36. 13)사람의 원수(怨讐)가 자기(自己) 집안 식구(食口)일 것이다. — 미 7:6
37.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適合)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適合)하지 않다.
38. 또 자기(自己) 십자가(十字架)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適合)하지 않다.
39. 자기(自己)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爲)하여 자기(自己)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보상(補償)에 대(對)한 말씀(막 9:41)

40.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41. 예언자(豫言者)를 예언자(豫言者)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豫言者)가 받을 상(賞)을 받을 것이요, 의인(義人)을 의인(義人)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義人)이 받을 상(賞)을 받을 것이다.
42.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弟子)라고 해서 냉수(冷水)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絶對)로 자기(自己)가 받을 상(賞)을 잃지 않을 것이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1 장(第十一章)

1. 예수께서 열두 제자(弟子)에게 지시(指示)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서서, 1)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福音)을 전(傳)하셨다. — 그, '그들의'

세례자(洗禮者) 요한이 보낸 사람들(눅 7:18-35)

2. 그런데 요한은, 2)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監獄)에서 전(傳)해 듣고, 자기(自己)의 3) 제자(弟子)들을 예수께 보내어,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두 제자(弟子)를'
3. 물어 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當身)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對答)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4)나병(癩病) 환자(患者)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福音)을 듣는다. — 나병(癩病)을 포함(包含)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惡性皮膚病)을 말함
6. 나에게 5)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福)이 있다." — 또는 '의심(疑心)을 품지 않는'
7.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曠野)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6)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華麗)한 옷을 입은 사람이나? 화려(華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王宮)에 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너희는 왜 나갔더냐? 화려(華麗)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9. 7)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豫言者)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豫言者)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聖經)에 기록(記錄)하기를,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너희는 왜 나갔더냐? 예언자(豫言者)를 보러 나갔더냐?'
10. 8)'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 말 3:1
11.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女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9)세례자(洗禮者) 요한보다 더 큰 인물(人物)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 또는 '침례자(浸禮者)'
12. 10)세례자(洗禮者) 요한 때로부터 지금(至今)까지, 하늘 나라는 11)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12)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 또는 '침례자(浸禮者)'또는 '폭행(暴行)을 당(當)한다'또는 '폭력(暴力)을 행사(行使)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약탈(掠奪)한다'

13. 모든 예언자(豫言者)와 율법서(律法書)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 나라가 올 것을 예언(豫言)하였다.
14. 너희가 그 예언(豫言)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15.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16. "이 세대(世代)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場)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17.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哭)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鬼神)이 들렸다' 하고,
19. 인자(人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者)요, 포도주(葡萄酒)를 마시는 자(者)요, 세리(稅吏)와 죄인(罪人)의 친구(親舊)다' 한다. 그러나 지혜(智慧)는 그 13)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立證)되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자녀(子女)들로'

회개(悔改)하지 않는 도시(都市)에 화(禍)가 있다(눅 10:13-15)

20. 그 때에 예수께서는, 자기(自己)가 기적(奇蹟)을 많이 행(行)한 마을들이 회개(悔改)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始作)하셨다.
21. "고라신아, 너에게 화(禍)가 있다. 벳새다야, 너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行)한 기적(奇蹟)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行)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굶은 배 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悔改)하였을 것이다.
22.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審判)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울 것이다.
23. 화(禍)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셴이냐? 14)지옥(地獄)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行)한 기적(奇蹟)들을 소돔에서 행(行)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 그, '하데스'
24.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審判)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건디기 쉬울 것이다."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눅 10:21-22)

25.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主)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智慧)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15)감사(感謝)합니다. — 또는 '찬양(讚揚)합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恩惠)로운 뜻입니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

- 들과 또 아들이 계시(啓示)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28. "수고(受苦)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溫柔)하고 겸손(謙遜)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30. 내 멍에는 편(便)하고, 내 짐은 가볍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2 장(第十二章)

안식일(安息日)에 예수의 제자(弟子)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다(막 2:23-28; 눅 6:1-5)

1.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安息日)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弟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始作)하였다.
2. 바리새파(派)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當身)의 제자(弟子)들이 안식일(安息日)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1)다윗과 그 일행(一行)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 삼상(上) 21:6
4.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祭壇)에 차려 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祭司長)들 밖에는, 자기(自己)도 그 일행(一行)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5. 2)또 안식일(安息日)에 성전(聖殿)에서 제사장(祭司長)들이 안식일(安息日)을 범(犯)해도 그것이 죄(罪)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律法冊)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 민(民) 28:9
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聖殿)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7. 3)'나는 자비(慈悲)를 원(願)하고, 제사(祭祀)를 원(願)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罪) 없는 사람들을 정죄(定罪)하지 않았을 것이다. — 호 6:6
8. 인자(人子)는 안식일(安息日)의 주인(主人)이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막 3:1-6; 눅 6:6-11)

9.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會堂)에 들어가셨다.
10.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告發)하려고 "안식일(安息日)에 병(病)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羊)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安息日)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12. 사람이 양(羊)보다 얼마나 더 귀(貴)하나? 그러므로 안식일(安息日)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13.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14. 그래서 바리새파(派)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얍살 모의(謀議)를 하였다.

내가 뽑은 나의 종

15.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4)무리가 예수를 따라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무리'가 없음
16. 그리고 자기(自己)를 세상(世上)에 드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當付)하셨다.
17. 이것은 예언자(豫言者)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8. 5)"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者), 내가 내 영(靈)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異邦) 사람들에게 공의(公義)를 선포(宣布)할 것이다. — 사 42:1-3
19.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20. 정의(正義)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傷)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心)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21. 6)이방(異邦)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希望)을 걸 것이다." — 사 42:4(칠십인역(七十人譯))

예수와 바알세불(막 3:20-30; 눅 11:14-23; 12:10)

22. 그 때에 사람들이, 귀신(鬼神)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23. 그래서 무리가 모두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子孫)이 아닌가?"
24. 그러나 바리새파(派)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鬼神)의 두목(頭目)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鬼神)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亡)하고, 어느 도시(都市)나 가정(家庭)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26.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27.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鬼神)을 쫓아낸다고 하면, 너희의 7)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鬼神)을 쫓아낸다는 말이나?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裁判官)이 될 것이다. —귀 신(鬼神) 축출자(逐出者)들을 말함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靈)을 힘입어서 귀신(鬼神)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29. 사람이 먼저 힘 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수 있다.
30.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反對)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헤치는 사람이다.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罪)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神聖冒瀆

的)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容恕)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聖靈)을 모독(冒瀆)하는 것은 용서(容恕)를 받지 못할 것이다.

32. 또 누구든지 인자(人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容恕)를 받겠으나, 성령(聖靈)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世上)에서도 오는 세상(世上)에서도, 용서(容恕)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눅 6:43-45)

33.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34. 독사(毒蛇)의 자식(子息)들아! 너희가 악(惡)한데, 어떻게 선(善)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法)이다.
35. 선(善)한 사람은 선(善)한 것을 쌓아 두었다가 선(善)한 것을 내고, 악(惡)한 사람은 악(惡)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惡)한 것을 낸다.
36.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審判) 날에 자기(自己)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解明)해야 할 것이다.
37.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선고(無罪宣告)를 받기도 하고, 유죄선고(有罪宣告)를 받기도 할 것이다.”

요나의 표징(表徵)을 예언(豫言)하시다(막 8:11-12; 눅 11:29-32)

38. 그 때에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先生)님, 우리는 선생(先生)님께서서 8)표징(表徵)을 보았으면 합니다." — 12:38; 39의 '표징(表徵)'은 예수의 신성(神性)을 보여주기 위(爲)한 상징(象徵)으로서의 기적(奇蹟)
3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惡)하고, 음란(淫亂)한 세대(世代)가 표징(表徵)을 요구(要求)하지만, 예언자(豫言者) 요나의 표징(表徵) 밖에는, 이 세대(世代)는 아무 표징(表徵)도 받지 못할 것이다.
40.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人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41. 심판(審判)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世代)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世代)를 정죄(定罪)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宣布)를 듣고 회개(悔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42. 심판(審判) 때에 남방(南方) 여왕(女王)이 이 세대(世代)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世代)를 정죄(定罪)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智慧)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방비(防備)가 없으면 귀신(鬼神)이 되돌아온다(눅 11:24-26)

43. "9)악(惡)한 귀신(鬼神)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 또는 '더러운 귀신(鬼神)'
44.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整頓)되어 있었다.
45.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自己)보다 더 악(惡)한 판 귀신(鬼神)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形便)이 처음보다 더 비참(悲慘)하게 되었다. 이 악(惡)한 세대(世代)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兄弟)들(막 3:31-35; 눅 8:19-21)

46.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兄弟)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47.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先生)님의 어머니와 형제(兄弟)들이 선생(先生)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48. 그 말을 전(傳)해 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兄弟)들이냐?"
49.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弟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兄弟)들이다.
5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兄弟)요 자매(姊妹)요 어머니이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3 장(第十三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比喻)(막 4:1-9; 눅 8:4-8)

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2.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比喻)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었다.
5.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짜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나지만,
6.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7.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8.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百倍)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 배(六十倍)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 배(三十倍)가 되었다.
9. 1)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들을 귀가'

비유(比喻)로 말씀하신 목적(目的)(막 4:10-12; 눅 8:9-10)

10. 제자(弟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比喻)로 말씀하십니까?"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對答)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秘密)을 아는 것을 허락(許諾)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12.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3. 내가 그들에게 비유(比喻)로 말하는 이유(理由)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의 예언(豫言)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 사 6:9; 10
15. 이 백성(百姓)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只今) 보고 있으니 복(福)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只今) 듣고 있으니 복(福)이 있다.
17. 그러므로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豫言者)와 의인(義人)이 너희가 지금(只今)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只今)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비유(比喻)를 해설(解說)하시다(막 4:13-20; 눅 8:11-15)

18.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比喻)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惡)한 자(者)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짜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患難)이나 박해(迫害)가 일어나면, 곧 질려 넘어진다.
22.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世上)의 염려(念慮)와 재물(財物)의 유혹(誘惑)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 배(百倍) 혹(或)은 육십 배(六十倍) 혹(或)은 삼십 배(三十倍)의 결실(結實)을 낸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比喻)

24.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比喻)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自己)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3)사람과 같다. — 또는 '사람의 사정(事情)과'
25.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怨讐)가 와서, 밀 가운데에 4)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 그, '독(毒)보리를'
26.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27. 그래서 주인(主人)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主人)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28. 주인(主人)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怨讐)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主人)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29. 그러나 주인(主人)은 이렇게 대답(對答)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30. 추수(秋收)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秋收)할 때에, 내가 추수꾼[秋收軍]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庫間]에 거두어들이라고 하겠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比喻)(막 4:30-32; 눅 13:18-21)

31.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比喻)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5)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自己) 밭에 심었다. — 또는 '겨자씨와 관련(關聯)해서 일어나는 일의 사정(事情)과'

32.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空中)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33.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比喻)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6)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女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7)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 또는 '누룩과 관련(關聯)해서 일어나는 일의 사정(事情)과'그, '감추었더니'

비유(比喻)로 말씀하시다(막 4:33-34)

34.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比喻)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比喻)가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이것은 8)예언자(豫言者)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9)"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比喻)로 말할 터인데, 창세(創世) 이래(以來)로 숨겨 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예언자(豫言者) 이사야'시(詩) 78:2

가라지 비유(比喻)를 설명(說明)하시다

36.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弟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比喻)를 우리에게 설명(說明)하여 주십시오."
3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人子)요,
38. 밭은 세상(世上)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子女)들이요, 가라지는 악(惡)한 자(者)의 자녀(子女)들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怨讐)는 악마(惡魔)요, 추수(秋收) 때는 세상(世上) 끝 날이요, 추수꾼[秋收軍]은 천사(天使)들이다.
40.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世上) 끝 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41. 인자(人子)가 천사(天使)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罪)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不法)을 행(行)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自己)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 모아다가,
42.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義人)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10)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들을 귀가'

세 가지 비유(比喻)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 놓은 11)보물(寶物)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發見)하면, 제자리에 숨겨 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 또는 '보물(寶物)과 관련(關聯)해서 일어나는 일의 사정(事情)과'
45.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珍珠)를 구(求)하는 12)상인(商人)과 같다. — 또는 '상인(商人)의 사정(事情)과'

46. 그가 값진 진주(珍珠) 하나를 발견(發見)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48.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海邊)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49. 세상(世上) 끝 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天使)들이 와서, 의인(義人)들 사이에서 악(惡)한 자(者)들을 가려내서,
50.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새 것과 낡은 것

51. 예수께서 제자(弟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對答)하였다.
5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위(爲)하여 훈련(訓練)을 받은 율법학자(律法學者)는 누구나, 자기(自己) 곳간[庫間]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主人)과 같다."
53. 예수께서 이 비유(比喻)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 곳을 떠나셨다.

고향(故鄉) 나사렛에서 배척(排斥)을 받으시다(막 6:1-6; 눅 4:16-30)

54. 예수께서 자기(自己) 고향(故鄉)에 가셔서, 13)회당(會堂)에서 14)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智慧)와 그 놀라운 능력(能力)을 얻었을까? — 그 , '그들의 회당(會堂)에서' 그, '그들을'
55. 이 사람은 목수(木手)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56.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57.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豫言者)는 자기(自己) 고향(故鄉)과 자기(自己) 집 밖에서는 존경(尊敬)을 받지 않는 법(法)이 없다."
58.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奇蹟)을 많이 행(行)하지 않으셨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4 장(第十四章)

세례(洗禮) 요한이 죽임을 당(當)하다(막 16:14-29; 눅 9:7-9)

1. 그 무렵에 분봉왕(分封王) 헤롯이 예수의 소문(所聞)을 듣고서, 자기(自己) 신하(臣下)들에게 말하였다.
2. "이 사람은 1)세례자(洗禮者)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能力)을 발휘(發揮)하는 것이다." — 또는 '침례자(浸禮者)'
3. 헤롯은 일찍이, 2)자기(自己) 동생(同生)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다가 묶어서, 감옥(監獄)에 가둔 일이 있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자기(自己) 동생(同生)의 아내'
4.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女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次例) 말하였기 때문이다.
5.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民衆)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豫言者)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6.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生日)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7.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少女)에게, 청(請)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盟誓)로써 약속(約束)하였다.
8. 소녀(少女)는 자기(自己)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3)세례자(洗禮者) 요한의 머리를 쟁반(鍙盤)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 또는 '침례자(浸禮者)'
9. 왕(王)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盟誓)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命令)을 내리게 되었다.
10.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監獄)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11. 그 머리를 쟁반(鍙盤)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少女)에게 주니, 소녀(少女)는 그것을 자기(自己)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2. 요한의 제자(弟子)들이 와서, 그 시체(屍體)를 거두어다가 장사(葬事)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오천 명(五千名)을 먹이시다(막 6:20-44; 눅 9:10-17; 요 6:1-14)

13.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所聞)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洞)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14.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15. 저녁때가 되니, 제자(弟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各其) 먹을 것을 사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리갈 필요(必要)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7. 제자(弟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個)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18. 이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 오너라."
19.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다섯 개(個)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祝福) 기도(祈禱)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弟子)들에게 주시니, 제자(弟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20.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21. 먹은 사람은 여자(女子)들과 어린아이들 외(外)에, 어른 남자(男子)만도 오천 명(五千名)쯤 되었다.

물 위로 걸으시다(막 6:45-52; 요 6:15-21)

22. 예수께서는 곧 제자(弟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自己)보다 먼저 건너편(便)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23.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祈禱)하시려고 산(山)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24. 제자(弟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4)육지(陸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風浪)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25.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弟子)들에게로 가셨다.
26. 제자(弟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怯)에 질려서 "유령(幽靈)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27.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安心)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28.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님, 주(主)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主)님께로 오라고 명령(命令)하십시오."
29.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30.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 가게 되었다. 그 때에 그는 "주(主)님, 살려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 31.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疑心)하였느냐?"
- 32.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 33.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先生)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게네사렛에서 병자(病者)들을 고치시다(막 6:53-56)

- 34.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周圍)의 온 지방(地方)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病者)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 36.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 달라고 간청(懇請)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5 장(第十五章)

장로(長老)들의 전통(傳統)(막 7:1-23)

1.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派) 사람들과 율법학자(律法學者)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2. "당신(當身)의 제자(弟子)들은 어찌하여 장로(長老)들의 전통(傳統)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傳統)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誡命)을 어기느냐?"
4. 하나님께서 1)말씀하시기를 2)'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恭敬)하여라' 하시고, 또 3)'아버지나 어머니를 욕(辱)하는 자(者)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명(命)하여 말씀하시기를'출(出) 20:12; 신(申) 5:16출(出) 21:17; 레 20:9
5.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禮物)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6. 그 사람은 제 4)부모(父母)를 공경(恭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傳統) 때문에 하나님의 5)말씀을 폐(廢)한다. — 그, '아버지를'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법(法)을'
7. 위선자(僞善者)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適切)히 예언(豫言)하였다.
8. 6)'이 백성(百姓)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恭敬)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 사 29:13(칠십인역(七十人譯))
9. 그들은 사람의 훈계(訓戒)를 교리(敎理)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禮拜)한다."
10.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2. 그 때에 제자(弟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派)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憤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13.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自己)가 심지 않으신 식물(植物)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14.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 먼 사람이면서 눈 먼 사람을 인도(引導)하는 길잡이들이다. 눈 먼 사람이 눈 먼 사람을 인도(引導)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다."
15. 베드로가 예수께 "그 비유(比喻)를 우리에게 설명(說明)해 주십시오" 하고 청(請)하니,
1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18.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19. 마음에서 악(惡)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殺人)과 간음(姦淫)과 음행(淫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證言)과 비방(誹謗)이다.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가나안 여자(女子)의 믿음(막 7:24-30)

21.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地方)으로 가셨다.
22. 마침, 가나안 여자(女子) 한 사람이 그 지방(地方)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子孫)이신 주(主)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鬼神)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 마디도 대답(對答)하지 않으셨다. 그 때에 제자(弟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懇請)하였다. "저 여자(女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安心)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24.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羊)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25. 그러나 그 여자(女子)는 나아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懇請)하였다. "주(主)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26.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자녀(子女)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7. 그 여자(女子)가 말하였다. "주(主)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主人)의 상(床)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28.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女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女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所願)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時刻)에 그 여자(女子)의 딸이 나왔다.

많은 병자(病者)를 고치신 예수

29.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山)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30.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肢體)를 잃은 사람과 눈 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31.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나가고, 눈 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게 영광(榮光)을 돌렸다.

사천 명(四千名)을 먹이시다(막 8:1-10)

32.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弟子)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33. 제자(弟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 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求)하겠습니까?"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個)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對答)하였다. "일곱 개(個)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습니다."
35.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命)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나서,
36. 빵 일곱 개(個)와 물고기를 들어서 감사기도(感謝祈禱)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弟子)들에게 주시니, 제자(弟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37.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38. 먹은 사람은 여자(女子)들과 아이들 외(外)에도, 남자(男子)만 사천 명(四千名)이었다.
39.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地域)으로 가셨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6 장(第十六章)

표징문제(表徵問題)(막 8:11-13; 눅 12:54-56)

1. 바리새파(派) 사람들과 사두개파(派)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試驗)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1)표징(表徵)을 자기(自己)들에게 보여 달라고 요청(要請)하였다. — 12:38; 39의 '표징(表徵)'은 예수의 신성(神性)을 보여주기 위(爲)한 상징(象徵)으로서의 기적(奇蹟)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來日)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3.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궂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徵兆)는 분별(分別)할 줄 알면서, 시대(時代)의 2)징조(徵兆)들은 분별(分別)하지 못하느냐? — 또는 '표징(表徵)'. 그, '세메이온'
4. 악(惡)하고 음란(淫亂)한 세대(世代)가 표징(表徵)을 요구(要求)하지만, 이 세대(世代)는, 요나의 표징(表徵) 밖에는, 아무 표징(表徵)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 두고 떠나가셨다.

바리새파(派) 사람들과 사두개파(派) 사람들의 누룩(막 8:14-21)

5. 제자(弟子)들이 건너편(便)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 오는 것을 잊었다.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派) 사람들과 사두개파(派)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注意)하고 경계(警戒)하여라."
7.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8.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9.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五千名)이 먹은 그 빵 다섯 개(個)를 기억(記憶)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더냐?
10. 또한 사천 명(四千名)이 먹은 그 빵 일곱 개(個)를 기억(記憶)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주리나 거두었더냐?
11.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派) 사람들과 사두개파(派)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警戒)하여라."
12.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派) 사람들과 사두개파(派)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警戒)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베드로의 고백(告白)(막 8:27-30; 눅 9:18-21)

13.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地方)에 이르러서, 제자(弟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人子)를 누구라고 하느냐?"

14. 제자(弟子)들이 대답(對答)하였다. "3)세례자(洗禮者)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豫言者)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또는 '침례자(浸禮者)'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對答)하였다. "선생(先生)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4)그리스도입니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福)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18.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5)베드로다. 나는 이 6)반석(盤石) 위에다가 내 교회(教會)를 세울 것이다. 7)죽음의 8)문(門)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 그, '페트로스' 그, '페트라' 그, '하테스의', 곧 '죽은 자(者)들이 모여 있는 세계(世界)의' 또는 '세력(勢力)이'
19.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弟子)들에게 엄명(嚴命)하시기를, 자기(自己)가 9)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죽음과 부활(復活)을 처음으로 예고(豫告)하시다(막 8:31-9:1; 눅 9:22-27)

21.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自己)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長老)들과 제사장(大祭司長)들과 율법학자(律法學者)들에게 많은 고난(苦難)을 받고 죽임을 당(當)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弟子)들에게 밝히기 시작(始作)하였다.
22.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主)님, 안됩니다. 절대(絶對)로 이런 일이 주(主)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23.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24. 그 때에 예수께서는 제자(弟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自己)를 부인(否認)하고, 제 십자가(十字架)를 지고, 나를 따라 오너라.
25. 누구든지 자기(自己) 목숨을 구(救)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自己)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世上)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利得)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代價)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27. 인자(人子)가 자기(自己) 아버지의 영광(榮光)에 싸여, 자기(自己) 천사(天使)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 때에 그는 각(各) 사람에게, 그 행실(行實)대로 갚아 줄 것이다.
28.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人子)가 자기(自己) 왕권(王權)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7 장(第十七章)

예수의 변모(變貌)(막 9:2-13; 눅 9:28-36)

1. 그리고 옛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同生)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山)에 올라가셨다.
2.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變)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3.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4.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先生)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願)하시면, 1)제가 여기에다가 초막(草幕)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先生)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우리가'
5.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2)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 또는 '이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者)다'
6. 제자(弟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7.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8.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9. 그들이 산(山)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命)하셨다. "인자(人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光景)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10. 제자(弟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律法學者)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11.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확실(確實)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回復)시킬 것이다.
12.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對)하였다. 인자(人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苦難)을 받을 것이다."
13.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弟子)들은, 예수께서 3)세례자(洗禮者)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 또는 '침례자(浸禮者)'

귀신(鬼神)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막 9:14-29; 눅 9:37-43상반(上半))

14.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15. "주(主)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癇疾病)으로 몹시 고통(苦痛)받고 있습니다.

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16. 그래서 아이를 선생(先生)님의 제자(弟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
다.”
1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世代)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18.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鬼神)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鬼神)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瞬間)에 나왔다.
19. 그 때에 제자(弟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鬼神)을 쫓아
내지 못했습니까?"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對答)하셨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거
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山)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
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4) — (21절(節) 없음)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
本)들에는 '21. 그러나 이런 종류(種類)는 기도(祈禱)와 금식(禁食)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
는다'가 첨가(添加)되어 있음

죽음과 부활(復活)을 다시 예언(豫言)하시다(막 9:30-32; 눅 9:43하반(下半)-45)

22. 제자(弟子)들이 갈릴리에 모여 5)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人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살 때에'
23.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
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성전세(聖殿稅)를 내시다

24.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6)성전세(聖殿稅)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先生)은 성전세(聖殿稅)를 바치지 않습니까?" — 그, '디드
라크마(두 드라크마)'
25. 베드로가 대답(對答)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
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世上) 임금들이 관세(關稅)나, 주민세(住民稅)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自己) 자녀(子女)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26. 베드로가 대답(對答)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
면 자녀(子女)들은 면제(免除)받는다.
27. 그러나 우리가 7)그들을 걸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네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8)은전(銀錢) 한 닢이 그 속
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 또는 '그들의 비위
(脾胃)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그, '스타테르'. 두 디드라크마, 곧 네 드라크마에 해당(該當)

함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8 장(第十八章)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막 9:33-37; 눅 9:46-48)

1. 그 때에 제자(弟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2.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겹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絶對)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自己)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迎接)하면, 나를 영접(迎接)하는 것이다."

죄(罪)의 유혹(誘惑)(막 9:42-48; 눅 17:1-2)

6.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1)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便)이 낫다. — 또는 '죄(罪) 짓게'
7. 사람을 2)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世上)에는 화(禍)가 있다. 3)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4)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禍)가 있다." — 또는 '죄(罪) 짓게' 또는 '죄(罪) 짓게' 또는 '죄(罪) 짓게'
8. "네 손이나 발이 너를 5)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永遠)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生命)에 들어가는 편(便)이 낫다. — 또는 '죄(罪) 짓게'
9. 또 네 눈이 너를 6)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7)지옥(地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生命)에 들어가는 편(便)이 낫다." — 또는 '죄(罪) 짓게' 그, '게헨나'

잃은 양(羊)의 비유(比喩)(눅 15:3-7)

10.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操心)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天使)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8)(11절(節) 없음)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11. 인자(人子)는 잃은 사람을 구원(救援)하러 왔다'가 첨가(添加)되어 있음
12.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羊) 백(百)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아흔아홉 마리를 산(山)에다 남겨 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羊)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羊)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羊)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羊)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亡)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9)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내’

용서(容恕)하라(눅 17:3)

15. “네 10)형제(兄弟)가 [너에게] 죄(罪)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忠告)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11)형제(兄弟)를 얻은 것이다. — 또는 ‘신도(信徒)’.
16.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12)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證人)의 입을 빌어서 확정(確定)지으려는 것이다. — 신(申) 19:15
17. 그러나 그 13)형제(兄弟)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教會)에 말하여라. 교회(教會)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異邦) 사람이나 세리(稅吏)와 같이 여겨라.” — 또는 ‘신도(信徒)’
18.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내가 [진정(眞情)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合心)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求)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용서(容恕)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比喻)

21.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主)님, 내 14)형제(兄弟)가 나에게 자꾸 죄(罪)를 지으면, 내가 몇 번(番)이나 용서(容恕)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番)까지 하여야 합니까?” — 또는 ‘신도(信徒)’
22.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일곱 번(番)만이 아니라, 15)일흔 번(番)을 일곱 번(番)이라도 하여야 한다. — 또는 ‘일흔 일곱 번(番)까지’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自己) 종들과 섬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16)왕(王)과 같다. — 또는 ‘왕(王)의 사정(事情)과’
24. 왕(王)이 섬을 가리기 시작(始作)하니, 만(萬) 17)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王) 앞에 끌려왔다. — 한 달란트는 노동자(勞動者)의 15년(年) 품삯
25.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主人)은 그 종에게, 자신(自身)과 그 아내와 자녀(子女)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命令)하였다.
26.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哀願)하였다.
27. 주인(主人)은 그 종을 가없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28.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自己)에게 백(百) 18)테나리온 빚진 동료(同僚)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먹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 한 테나리온은 노동자(勞動者)의 하루 품삯
29. 그 동료(同僚)는 앞드려 간청(懇請)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同僚)를 감옥(監獄)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31. 다른 종들이 이 광경(光景)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主人)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主人)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惡)한 종아, 네가 애원(哀願)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同僚)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34. 주인(主人)이 노(怒)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刑務所官吏)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35. 너희가 각각(各各) 진심(眞心)으로 자기(自己) 19)형제자매(兄弟姊妹)를 용서(容恕)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 그, '형제(兄弟)'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19 장(第十九章)

이혼문제(離婚問題)(막 10:1-12)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 강(江) 건너편(便) 유대 지방(地方)으로 가셨다.
2.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3. 바리새파(派)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試驗)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理由)만 있으면, 남편(男便)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4.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사람을 창조(創造)하신 분이 처음부터 1)그들을 남자(男子)와 여자(女子)로 지으셨다는 것과, — 창(創) 1:27
5.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2)'그러므로 남자(男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自己) 아내와 합(合)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 창(創) 2:24(칠십인역(七十人譯))
6.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
7.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離婚) 증서(證書)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命令)하였습니까?"
8.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頑惡)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許諾)하여 준 것이지, 본래(本來)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淫行)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女子)에게 장가 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姦淫)하는 것이다."
10. 제자(弟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男便)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12. 모태(母胎)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鼓子)도 있고, 사람이 고자(鼓子)로 만들어서 된 고자(鼓子)도 있고, 또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鼓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어린이를 축복(祝福)하시다(막 10:13-16; 눅 18:15-17)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祈禱)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弟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4.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許諾) 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15.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부자(富者) 젊은이(막 10:17-31; 눅 18:18-30)

16.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先生)님, 내가 영원(永遠)한 생명(生命)을 얻으려면, 무슨 선(善)한 일을 해야 합니까?"

1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善)한 일을 묻느냐. 선(善)한 분은 한 분이다. 네가 생명(生命)에 들어가기로 원(願)하면, 계명(誡命)들을 지켜라."

18.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誡命)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3)" 살인(殺人)하지 말아라. 간음(姦淫)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證言)을 하지 말아라. — 출(出) 20:12-16; 신(申) 5:16-20

19.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恭敬)하여라. 그리고, 4)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 레 19:18

20.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5)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不足)합니까?"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젊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21.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完全)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所有)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寶貨)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財産)이 많았기 때문이다.

23. 예수께서 제자(弟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富者)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4.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富者)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駱駝)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25. 제자(弟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救援)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27.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先生)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2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世上)에서 인자(人子)가 자기(自己)의 영광(榮光)스러운 보좌(寶座)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열두 보좌(寶座)에 앉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支派)를 심판(審判)할 것이다.

29. 내 이름을 위(爲)하여 집이나 형제(兄弟)나 자매(姊妹)나 6)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子息)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7)백 배(百倍)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永遠)한 생명(生命)을 물려받을 것이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와 '자식(子息)이나' 사이에 '아내나'가 있음.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여러 배(倍)'
30.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境遇)가 많을 것이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0 장(第二十章)

포도원(葡萄園)의 품꾼들

1. "하늘 나라는 자기(自己) 포도원(葡萄園)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雇用)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葡萄園) 1)주인(主人)과 같다. — 또는 '주인(主人)의 사정(事情)과'
2.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2)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合意)하고, 그들을 자기(自己) 포도원(葡萄園)으로 보냈다. —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勞働者)의 하루 품삯
3. 그리고서 아홉 시(時)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場)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4.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葡萄園)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適當)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5.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主人)이 다시 열두 시(時)와 오후(午後) 세 시(時)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6. 오후(午後) 다섯 시(時)쯤에 주인(主人)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當身)들은 온종일(終日)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7. 그들이 그에게 대답(對答)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當身)들도 포도원(葡萄園)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8. 저녁이 되니, 포도원(葡萄園) 주인(主人)이 자기(自己) 관리인(管理人)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始作)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9. 오후(午後) 다섯 시(時)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0.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慇懃)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11.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主人)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12.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時間)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終日) 수고(受苦)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待遇)하였습니다.'
13. 그러자 주인(主人)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當身)을 부당(不當)하게 대(對)한 것이 아니요. 당신(當身)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合意)하지 않았소?
14. 당신(當身)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當身)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15.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厚)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當身)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16.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3)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擇)함받은 사람은 적다'가 첨가(添加)되어 있음

죽음과 부활(復活)을 세 번(番)째로 예고(豫告)하시다(막 10:32-34; 눅 18:31-34)

17.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4)제자(弟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제자(弟子)'가 없음
18. "보아라, 우리는 지금(只今)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人子)가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율법학자(律法學者)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宣告)할 것이며,
19. 그를 이방(異邦)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嘲弄)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十字架)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要求)(막 10:35-45)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請)하였다.
21. 예수께서 그 여자(女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願)하십니까?" 여자(女子)가 대답(對答)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先生)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先生)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先生)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22.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求)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盞)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5) 그들이 대답(對答)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또 내가 받는 세례(洗禮)를 받을 수 있겠느냐?'가 첨가(添加)되어 있음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正)말로 너희는 나의 잔(盞)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定)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24. 열 제자(弟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兄弟)에게 분개(憤慨)하였다.
25.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민족(異邦民族)들의 통치자(統治者)들은 백성(百姓)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高官)들은 백성(百姓)에게 세도(勢道)를 부린다.
26.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偉大)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27.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 인자(人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爲)하여 자기(自己)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눈 먼 사람 둘을 고치시다(막 10:46-52; 눅 18:35-43)

29. 그들이 예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30. 그런데 눈 먼 사람 둘이 길 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子孫)이신 [주(主)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1.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子孫)이신 주(主)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32.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所願)이 무엇이나?"
33.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34.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1 장(第二十一章)

예루살렘에 입성(入城)하시다(막 11:1-11; 눅 19:28-38; 요 12:12-19)

1. 1)예수와 그 제자(弟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山)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弟子)를 보내시며 — 그, '그들이'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便)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3.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2)'주(主)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 또는 "'주(主)님께서 쓰시고 곧 돌려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4. 이것은, 예언자(豫言者)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5. 3)"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溫柔)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눅 9:9
6. 제자(弟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指示)하신 대로,
7.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겂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8. 큰 무리가 자기(自己)들의 겂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9.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4)"5)호산나, 다윗의 자손(子孫)께! 복(福)되시다, 주(主)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 시(詩) 118:26'구(救)하여 주십시오!'를 뜻하는 히브리어(語)였으나 찬양(讚揚)의 감탄(感歎)으로 사용(使用)됨
10.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都市)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1.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豫言者) 예수라고 말하였다.

성전(聖殿)을 깨끗하게 하시다(막 11:15-19; 눅 19:45-48; 요 2:13-22)

12. 예수께서 성전(聖殿)에 들어가셔서, 성전(聖殿)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床)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椅子)를 들어 엎으시고,
13.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聖經)에 기록(記錄)한 바, 6)'내 집은 기도(祈禱)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7)'강도(強盜)들의 소굴(巢窟)'로 만들어 버렸다." — 사 56:7렘 7:11
14. 성전(聖殿) 뜰에서 눈 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

들을 고쳐 주셨다.

15. 그러나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율법학자(律法學者)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聖殿) 뜰에서 "다윗의 자손(子孫)에게 8)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禍)가 나서 — '구(救)하여 주십시오!'를 뜻하는 히브리어(語)였으나 찬양(讚揚)의 감탄(感歎)으로 사용(使用)됨
16.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當身)은 아이들이 무어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9)'주(主)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讚揚)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 시(詩) 8:2(칠십인역(七十人譯))
17.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 두고, 성(城)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서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무화과(無花果)나무를 저주(詛呪)하시다(막 11:12-14; 20-24)

18. 새벽에 성(城)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嘶腸)하셨다.
19. 마침 길 가에 있는 무화과(無花果)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永遠)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無花果)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
20. 제자(弟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無花果)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當場) 말라버렸을까?"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疑心)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無花果)나무에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山)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22. 또 너희가 기도(祈禱)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求)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의 권위(權威)를 논란(論難)하다(막 11:27-33; 눅 20:1-8)

23. 예수께서 성전(聖殿)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백성(百姓)의 장로(長老)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當身)은 무슨 권한(權限)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當身)에게 이런 권한(權限)을 주었소?"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對答)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겠다. 너희가 대답(對答)하면, 나도 무슨 권한(權限)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25. 요한의 10)세례(洗禮)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自己)들끼리 의논(議論)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 또는 '침례(浸禮)'
26.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우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豫言者)로 여기

니 말이오.”

27.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對答)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權限)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두 아들의 비유(比喻)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애야, 너 오늘 포도원(葡萄園)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29. 11)그런데 맏아들은 대답(對答)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29.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30.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말하기를 ‘싫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對答)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31.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行)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對答)하였다. 12)”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稅吏)와 창녀(娼女)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32.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 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稅吏)와 창녀(娼女)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포도원(葡萄園)과 소작인(小作人)의 비유(比喻)(막 12:1-12; 눅 20:9-19)

33. “다른 비유(比喻)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主人)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葡萄園)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葡萄汁)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望臺)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農夫)들에게 세(賃)로 주고, 멀리 떠났다.
34.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所出)을 받으려고 자기(自己) 종들을 농부(農夫)들에게 보냈다.
35. 그런데, 농부(農夫)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36. 주인(主人)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農夫)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37.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自己)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尊重)하겠지’ 하였다.
38. 그러나 농부(農夫)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相續者)다.

-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遺産)을 우리가 차지하자.’
39.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葡萄園)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40. 그러니 포도원(葡萄園) 주인(主人)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農夫)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惡)한 자(者)들을 가차(假借)없이 죽이고, 제 때에 소출(所出)을 바칠 다른 농부(農夫)들에게 포도원(葡萄園)을 맡길 것입니다.”
4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聖經)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13)’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主)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 시(詩) 118:22;23
43.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民族)에게 주실 것이다.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45.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比喻)를 듣고서, 자기(自己)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46.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豫言者)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2 장(第二十二章)

혼인(婚姻) 잔치의 비유(比喻)(눅 14:15-24)

1.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比喻)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自己) 아들의 혼인(婚姻) 잔치를 베푸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임금이 자기(自己) 종들을 보내서, 초대(招待)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招待)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飮食)을 다 차리고, 황(黃)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準備)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5. 그런데 초대(招待)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自己)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侮辱)하고 죽였다.
7. 임금은 노(怒)해서, 자기(自己) 군대(軍隊)를 보내서 그 살인자(殺人者)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都市)를 불살라 버렸다.
8. 그리고 자기(自己)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婚姻) 잔치는 준비(準備)되었는데, 초대(招待)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資格)이 없다.
9. 그러니 너희는 네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請)해 오너라.'
10. 종들은 큰길로 나가서, 악(惡)한 사람이나, 선(善)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婚姻)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11.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예복(婚姻禮服)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名)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12.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예복(婚姻禮服)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13. 그 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分付)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황제(皇帝)에게 바치는 세금(税金)(막 12:13-17; 눅 20:20-26)

15. 그 때에 바리새파(派)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울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議論)하였다.
16.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自己)네 제자(弟子)들을 헤롯 당원(黨員)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先生)님, 우리는, 선생(先生)님이 진실(眞實)한 분이시고, 하

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先生)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17. 그러니 선생(先生)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皇帝)에게 세금(稅金)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8.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奸惡)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僞善者)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試驗)하느냐?"
19. 세금(稅金)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 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닢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20.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肖像)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字)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21. 그들이 대답(對答)하였다. "황제(皇帝)의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皇帝)의 것은 황제(皇帝)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22.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歎服)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 두고 떠나갔다.

부활(復活)을 두고 묻다(막 12:18-27; 눅 20:27-40)

23. 같은 날 1)사두개파(派)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復活)이 없다고 주장(主張)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부활(復活)이 없다고 주장(主張)하는 사두개파(派)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24. "선생(先生)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子息)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同生)이 형수(兄嫂)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後嗣)를 세워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까."
25.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兄弟)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子息)이 없이 죽으므로, 아내를 그의 동생(同生)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26.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7. 맨 나중에는, 그 여자(女子)도 죽었습니다.
28. 그러니 부활(復活) 때에 그 여자(女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女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29.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對答)하셨다. "너희는 성경(聖經)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能力)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30. 부활(復活)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媳)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天使)들과 같다.
31. 죽은 사람들의 부활(復活)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32. 하나님께서는 2)'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 출(出) 3:6
33.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가장 큰 계명(誡命)(막 12:28-34; 눅 10:25-28)

34. 바리새파(派)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派) 사람들의 말문(門)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所聞)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35. 그리고 그들 가운데 3)율법 교사(律法教師) 하나가 예수를 시험(試驗)하여 물었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율법 교사(律法教師)'가 없음
36. "선생(先生)님, 율법(律法) 가운데 어느 계명(誡命)이 중요(重要)합니까?"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4)'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主)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 신(申) 6:5
38. 이것이 가장 중요(重要)하고 으뜸 가는 계명(誡命)이다.
39. 둘째 계명(誡命)도 이것과 같은데, 5)'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 레 19:18
40. 이 두 계명(誡命)에 온 율법(律法)과 예언서(豫言書)의 본(本) 뜻이 달려 있다."

다윗의 자손(子孫)(막 12:35-37; 눅 20:41-44)

41. 바리새파(派)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42. "너희는 6)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子孫)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對答)하였다. "다윗의 자손(子孫)입니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43.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7)성령(聖靈)의 감동(感動)을 받아, 그를 주(主)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 그, '영(靈)'
44. 8)'주(主)님께서 내 주(主)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怨讐)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 시(詩) 110:1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主)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子孫)이 되겠느냐?"
46.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 마디도 대답(對答)하지 못했으며, 그 날부터는 그에게 감(敢)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3 장(第二十三章)

율법학자(律法學者)와 바리새파(派) 사람을 꾸짖으시다(막 12:38-40; 눅 11:37-52; 20:45-47)

1.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弟子)들에게 말씀하셨다.
2.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3.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行)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行實)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行)하지는 않는다.
4.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自己)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5.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1)경문(經文) 껍을 크게 만 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린다. — 성경구절(聖經句節)이 들어 있는 껍으로서 이마나 팔에 달고 다님
6.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會堂)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7. 장(場)터에서 인사(人事) 받기와, 사람들에게 2)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 스승을 일컫는 히브리 말의 그리스어(語) 음역(音譯)
8. 그러나 너희는 3)랍비라는 호칭(呼稱)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先生)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4)형제자매(兄弟姊妹)들이다. — 스승을 일컫는 히브리 말의 그리스어(語) 음역(音譯)그, '형제(兄弟)들'
9.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10. 또 너희는 지도자(指導者)라는 호칭(呼稱)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指導者)는 5)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11.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12. 자기(自己)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自己)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13.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아! 위선자(僞善者)들아! 너희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門)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自己)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6)(14절(節) 없음)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14. 이 위선자(僞善者)인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는 과부(寡婦)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祈禱)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審判)을 받을 것이다'가 첨가(添加)되어 있음

15.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아! 위선자(僞善者)들아! 너희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改宗者)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陸地)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倍)나 더 못된 7)지옥(地獄)의 자식(子息)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 그, '게헨나'
16. "눈 먼 인도자(引導者)들아! 너희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聖殿)을 두고 맹세(盟誓)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聖殿)의 금(金)을 두고 맹세(盟誓)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17. 어리석고 눈 먼 자(者)들아! 어느 것이 더 중(重)하나? 금(金)이나? 그 금(金)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聖殿)이나?
18.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祭壇)을 두고 맹세(盟誓)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祭壇) 위에 놓여 있는 제물(祭物)을 두고 맹세(盟誓)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19. 눈 먼 자(者)들아! 어느 것이 더 중(重)하나? 제물(祭物)이나? 그 제물(祭物)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祭壇)이나?
20. 제단(祭壇)을 두고 맹세(盟誓)하는 사람은, 제단(祭壇)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盟誓)하는 것이요,
21. 성전(聖殿)을 두고 맹세(盟誓)하는 사람은, 성전(聖殿)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盟誓)하는 것이다.
22. 또 하늘을 두고 맹세(盟誓)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寶座)와 그 보좌(寶座)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盟誓)하는 것이다."
23.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아! 위선자(僞善者)들아! 너희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는 박하(薄荷)와 회향(茴香)과 근채(芹菜)의 십일조(十一條)는 드리면서, 정의(正義)와 자비(慈悲)와 신의(信義)와 같은 율법(律法)의 더 중요(重要)한 요소(要素)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疏忽)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行)해야 했다.
24. 눈 먼 인도자(引導者)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駱駝)는 삼키는구나!"
25.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아! 위선자(僞善者)들아! 너희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는 잔(盞)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貪慾)과 방종(放縱)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26. 눈 먼 바리새파(派) 사람들아! 먼저 잔(盞)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27.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아! 위선자(僞善者)들아! 너희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는 회칠(灰漆)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義)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僞善)과 불법(不

法)이 가득하다.”

29.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아! 위선자(僞善者)들아! 너희에게 화(禍)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豫言者)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義人)들의 기념비(記念碑)를 꾸민다.
30.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祖上)의 시대(時代)에 살았더라면, 예언자(豫言者)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加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31.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豫言者)들을 죽인 자(者)들의 자손(子孫)임을 스스로 증언(證言)한다.
32.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祖上)의 분량(分量)을 마저 채워라.
33. 뱀들아! 독사(毒蛇)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地獄)의 심판(審判)을 피(避)하겠느냐?
34.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豫言者)들과 지혜(智慧) 있는 자(者)들과 율법학자(律法學者)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十字架)에 못박고, 더러는 회당(會堂)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洞)네 저 동(洞)네로 뒤쫓으며 박해(迫害)할 것이다.
35. 그리하여 의인(義人)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聖所)와 제단(祭壇) 사이에서 살해(殺害)한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罪)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36.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責任)은 다 이 세대(世代)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한탄(恨歎)하시다(눅 13:34-35)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게 보낸 예언자(豫言者)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番)이나 네 자녀(子女)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니! 그러나 너희는 원(願)하지 않았다.
38.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荒廢)하게 될 것이다.
3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主)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福)되시다!' 하고 말할 그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4 장(第二十四章)

예루살렘 성전(聖殿)의 파괴(破壞)를 예언(豫言)하시다(막 13:1-2; 눅 21:5-6)

1. 예수께서 성전(聖殿)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弟子)들이 다가와서, 성전(聖殿) 건물(建物)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2.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재난(災難)의 시작(始作)(막 13:3-13; 눅 21:7-19)

3. 예수께서 올리브 산(山)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弟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先生)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世上) 끝 날에는 어떤 징조(徵兆)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操心)하여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1)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6.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戰爭)이 일어난 소식(消息)과 전쟁(戰爭)이 일어나리라는 소문(所聞)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唐慌)하지 않도록 주의(注意)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7. 민족(民族)이 민족(民族)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饑饉)과 지진(地震)이 있을 것이다.
8.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陣痛)의 시작(始作)이다."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患難)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民族)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 또 많은 사람이 2)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 또는 '믿음을 잃을 것이요'
11. 또 거짓 예언자(豫言者)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12. 그리고 불법(不法)이 성(盛)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救援)을 얻을 것이다.
14. 이 하늘 나라의 3)복음(福音)이 온 세상(世上)에 전파(傳播)되어서, 모든 민족(民族)에게 증언(證言)될 것이다.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 또는 '기쁜 소식(消息)'

가장 큰 재난(災難)(막 13:14-23; 눅 21:20-24)

15.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豫言者) 다니엘이 말한 바, 4)황폐(荒廢)하게 하는 가증(可憎)스러

운 물건(物件)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 단 9:27; 11:31; 12:11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山)으로 도망(逃亡)하여라.
17.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物件)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18.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19. 그 날에는 아이를 뱀 여자(女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女子)들은 불행(不幸)하다.
20. 너희가 도망(逃亡)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安息日)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祈禱)하여라.
21. 그 때에 큰 환난(患難)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患難)은 세상(世上)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2. 그 환난(患難)의 날들을 줄여 주지 않으셨다면, 구원(救援)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選擇)받은 사람들을 위(爲)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 주실 것이다.”
23.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5)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豫言者)들이 일어나서, 큰 6)표징(表徵)과 기적(奇蹟)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選擇)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 12:38; 39의 ‘표징(表徵)’은 예수의 신성(神性)을 보여주기 위(爲)한 상징(象徵)으로서의 기적(奇蹟)
25.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26.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曠野)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房)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27. 번개가 동(東)쪽에서 나서 서(西)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人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28.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禿)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인자(人子)의 오심(막 13:24-27; 눅 21:25-28)

29. 7)“그 환난(患難)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勢力)들은 흔들릴 것이다. — 사 13:10; 34:4
30. 그 때에 인자(人子)가 올 징조(徵兆)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民族)이 가슴을 치며, 인자(人子)가 큰 권능(權能)과 영광(榮光)에 싸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1. 그리고 그는 자기(自己) 천사(天使)들을 큰 나팔(喇叭)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四方)에서 그가 선택(選擇)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無花果)나무의 교훈(敎訓)(막 13:28-31; 눅 21:29-33)

32. "무화과(無花果)나무에서 교훈(敎訓)을 배워라. 가지가 연(軟)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8)인자(人子)가 문(門)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 그, '그가'
34.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世代)가 끝나기 전(前)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5.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과 그 시각(時刻)은 아무도 모른다(막 13:32-37; 눅 17:26-30; 34-36)

36.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時刻)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天使)들도 모르고, 9)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아들도 모르고'가 없음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人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38. 홍수(洪水) 이전(以前) 시대(時代)에, 노아가 방주(方舟)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媳)집가며 지냈다.
39. 홍수(洪水)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人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40.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41. 두 여자(女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 둘 것이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主)님께서 어느 10)날에 오실 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시각(時刻)에'
43. 이것을 명심(銘心)하여라. 집주인(主人)이 도둑이 밤 몇 시(時)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44.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準備)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時刻)에 인자(人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신실(信實)한 종과 신실(信實)하지 못한 종(눅 12:41-48)

45. "누가 신실(信實)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主人)이 그에게 자기(自己) 집 하인(下人)들을 통솔(統率)하게 하고, 제 때에 양식(糧食)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6. 주인(主人)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福)이 있다.
47.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主人)은 자기(自己) 모든 재산(財産)을 그에게

말길 것이다.

48.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主人)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49. 동료(同僚)들을 때리고, 술친구(親舊)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50.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時刻)에 그 종의 주인(主人)이 와서
51. 그 종을 처벌(處罰)하고, 위선자(僞善者)들이 받을 벌(罰)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5 장(第二十五章)

열 처녀(處女)의 비유(比喻)

1. "그런데,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燈)불을 들고 신랑(新郎)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處女)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2.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처녀(處女)들은 등(燈)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4.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處女)들은 자기(自己)들의 등(燈)불과 함께 통(桶)에 기름도 마련(磨鍊)하였다.
5. 신랑(新郎)이 늦어지니, 처녀(處女)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6. 그런데 한밤중(中)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新郎)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7. 그 때에 그 처녀(處女)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燈)불을 손질하였다.
8. 미련(未練)한 처녀(處女)들이 슬기로운 처녀(處女)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燈)불이 꺼져 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9.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處女)들이 대답(對答)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10. 미련한 처녀(處女)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新郎)이 왔다. 준비(準備)하고 있던 처녀(處女)들은 신랑(新郎)과 함께 혼인(婚姻) 잔치에 들어가고, 문(門)은 닫혔다.
11. 그 뒤에 나머지 처녀(處女)들이 와서 '주(主)님, 주(主)님, 문(門)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哀願)하였다.
12. 그러나 신랑(新郎)이 대답(對答)하기를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1)그 날과 그 시각(時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인자(人子)가 언제 올지 그 날과……'

달란트 비유(比喻)(눅 19:11-27)

14. "또 하늘 나라는 이런 사정(事情)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旅行)을 떠나면서, 자기(自己) 종들을 불러서, 자기(自己)의 재산(財産)을 그들에게 맡겼다.
15. 그는 각(各) 사람의 능력(能力)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 한 달란트는 노동자(勞動者)의 15년(年) 품삯
16.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17.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主人)의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主人)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主人)님, 주인(主人)님께서 다섯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21. 그의 주인(主人)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信實)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信實)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主人)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2.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主人)님, 주인(主人)님께서 두 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의 주인(主人)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信實)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信實)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主人)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4.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主人)님, 나는, 주인(主人)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25.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그의 주인(主人)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惡)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27.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利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28.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30. 이 쓸모 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최후(最後)의 심판(審判)

31. "인자(人子)가 모든 천사(天使)와 더불어 영광(榮光)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自己)의 영광(榮光)의 보좌(寶座)에 앉을 것이다.
32. 그는 모든 민족(民族)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牧者)가 양(羊)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33. 양(羊)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34. 그 때에 임금(王)은 자기(自己)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福)을 받

- 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創世) 때로부터 너희를 위(爲)하여 준비(準備)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35.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迎接)하였고,
36.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病)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監獄)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37. 그 때에 의인(義人)들은 그에게 대답(對答)하기를 '주(主)님, 우리가 언제, 주(主)님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잠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38.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迎接)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39. 언제 병(病)드시거나 감옥(監獄)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40. 임금(王)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3)형제자매(兄弟姊妹) 가운데, 지극(至極)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 그, '형제(兄弟)들'
41. 그 때에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詛呪)받은 자(者)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惡魔)와 그 졸(卒)개들을 가두려고 준비(準備)한 영원(永遠)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2. 너희는 내가 주릴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43.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迎接)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病)들어 있을 때나 감옥(監獄)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지 않았다.'
44. 그 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主)님, 우리가 언제 주(主)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病)드신 것이나, 감옥(監獄)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45. 그 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對答)하기를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至極)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46.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永遠)한 형벌(刑罰)로 들어가고, 의인(義人)들은 영원(永遠)한 생명(生命)으로 들어갈 것이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6 장(第二十六章)

예수를 죽일 음모(陰謀)(막 14:1-2; 눅 22:1-2; 요 11:45-53)

1.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自己) 제자(弟子)들에게 말씀하셨다.
2. "너희가 아는 대로, 이들이 지나면 1)유월절(逾越節)인데, 인자(人子)가 넘겨져서 십자가(十字架)에 달릴 것이다." — 출(出) 12:13; 21-28을 볼 것
3. 그 즈음에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백성(百姓)의 장로(長老)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大祭司長)의 관저(官邸)에 모여서,
4. 예수를 속임수(數)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謀議)하였다.
5. 그러나 그들은 "백성(百姓) 가운데서 소동(騷動)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名節)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어떤 여자(女子)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香油)를 붓다(막 14:3-9; 요 12:1-8)

6.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2)나병(癩病) 환자(患者)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癩病)을 포함(包含)한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惡性皮膚病)을 말함
7. 한 여자(女子)가 매우 값진 향유(香油) 한 옥합(玉盒)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飲食)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8. 그런데 제자(弟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憤慨)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浪費)하는 거요?"
9. 이 향유(香油)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10.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女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11.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12. 이 여자(女子)가 내 몸에 향유(香油)를 부은 것은, 내 장례(葬禮)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13.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世上) 어디서든지, 이 복음(福音)이 전파(傳播)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女子)가 한 일도 전(傳)해져서, 그를 기억(記憶)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합의(合意)하다(막 14:10-11; 눅 22:3-6)

14. 그 때에 열두 제자(弟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者)가, 대제사장(大祭司長)들에게 가서,
15.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作定)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銀)돈 서른 닢을 셈하여 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機會)를 노리고 있었다.

유월절(逾越節) 음식(飮食)을 나누시다(막 14:12-21; 눅 22:7-14; 21-23; 요 13:21-30)

17. 3)무교절(無酵節) 첫째 날에 제자(弟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先生)(先生)님께서 4)유월절(逾越節) 음식(飮食)을 잡수시게 준비(準備)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 출(出) 12:15-20을 볼 것. 출(出) 12:13; 21-28을 볼 것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城)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先生)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弟子)들과 함께 5)유월절(逾越節)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 출(出) 12:13; 21-28을 볼 것
19. 그래서 제자(弟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分付)하신 대로 하여, 6)유월절(逾越節)을 준비(準備)하였다. — 출(出) 12:13; 21-28을 볼 것
20.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7)열두 제자(弟子)와 함께 식탁(食卓)에 앉아 계셨다. 그, '열두와 함께'.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열두 제자(弟子)'
21.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22.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主)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始作)하였다.
23. 예수께서 대답(對答)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24. 인자(人子)는 자기(自己)에 관(關)하여 성경(聖經)에 기록(記錄)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人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禍)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自己)에게 좋았을 것이다."
25. 예수를 넘겨 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先生)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對答)하셨다.

마지막 만찬(晩餐)(막 14:22-26; 눅 22:15-20; 고전(前) 11:23-25)

26.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祝福)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弟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또 잔(盞)을 들어서 감사 기도(感謝祈禱)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盞)을 마셔라.
28. 이것은 죄(罪)를 사(赦)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爲)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8)언약(言約)의 피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새 언약(言約)의'
29.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葡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絶對)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30. 그들은 찬송(讚頌)을 부르고, 올리브 산(山)으로 갔다.

베드로가 부인(否認)할 것을 예고(豫告)하시다(막 14:27-31; 눅 22:31-34; 요 13:36-38)

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弟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9)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聖經)에 기록(記錄)하기를 10)'내가 목자(牧者)를 칠 것이니, 양(羊) 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 그, '나에게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눅 13:7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33.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11)주(主)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絶對)로 12)버리지 않겠습니다." — 그, '주(主)님께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 '걸려 넘어지지'
3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眞情)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前)에, 네가 세 번(番)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35.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主)님과 함께 죽는 한(限)이 있을지라도, 절대(絶對)로 주(主)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弟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겔세마네에서 기도(祈禱)하시다(막 14:32-42; 눅 22:39-46)

36.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弟子)들과 함께 겔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祈禱)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37.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始作)하셨다.
38. 그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地境)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39.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祈禱)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盞)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40. 그리고 제자(弟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時間)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41. 13)시험(試驗)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祈禱)하여라. 마음은 원(願)하지만, 육신(肉身)이 약(弱)하구나!" — 또는 '유혹(誘惑)'
42. 예수께서 다시 두 번(番)째로 가서, 기도(祈禱)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盞)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43.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44.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番)째로 기도(祈禱)하셨다.
45. 그리고 제자(弟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時間)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人子)가 죄인(罪人)들의 손에 넘어간다.

46.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者)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잡히시다(막 14:43-50; 눅 22:47-53; 요 18:3-12)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弟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백성(百姓)의 장로(長老)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48.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者)가 그들에게 암호(暗號)를 정(定)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49.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安寧)하십니까? 선생(先生)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親舊)여, 무엇 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51. 그 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自己) 칼을 빼어, 대제사장(大祭司長)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52.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亡)한다.
53.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當場)에 열두 군단(軍團) 이상(以上)의 천사(天使)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請)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聖經)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5.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強盜)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聖殿)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56.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豫言者)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 때에 제자(弟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의회(議會) 앞에 서시다(막 14:53-65; 눅 22:54-55; 63-71; 요 18:12-14; 19-24)

57.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大祭司長)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장로(長老)들이 모여 있었다.
58.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大祭司長)의 집 안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結末)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下人)들 틈에 끼여 앉았다.
59.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온 공의회(公議會)가 예수를 사형(死刑)에 처(處)하려고, 그분을 고발(告發)할 거짓 증거(證據)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證言)을 하였으나, 쓸 만한 증거(證據)는 얻지 못하였다. 그

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61.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聖殿)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
다."
62. 그러자, 대제사장(大祭司長)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不
利)하게 증언(證言)하는데도, 아무 답변(答辯)도 하지 않소?"
63.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大祭司長)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命令)하니,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14)그리스도요?"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64.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當身)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當身)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當身)들은, 인자(人子)가 권능(權能)의 보좌(寶座)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65. 그 때에 대제사장(大祭司長)은 자기(自己)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冒瀆)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以上) 증인(證人)이 무슨 필요(必要)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方今) 하나님을 모독(冒瀆)하는 말을 들었소.
66.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對答)하였다. "그는 사형(死刑)을 받아야
합니다."
67. 그 때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
기도 하며,
68. 말하였다. "15)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 또는 '메시
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막 14:66-72; 눅 22:56-62; 요 18:15-18; 25-27)

69.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下女)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
(當身)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70.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否認)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71.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大門)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下女)가 그를 보고, 거기
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16)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
그, '나사렛 사람'
72.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盟誓)하고 다시 부인(否認)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73.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當
身)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 패(牌)요. 당신(當身)의 말씨를 보니, 당신(當身)이 누군지 분명

(分明)히 드러나오.”

74. 그 때에 베드로는 저주(詛呪)하며 맹세[盟誓]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답이 올었다.

75. 베드로는 “답이 올기 전(前)에, 네가 나를 세 번(番) 부인(否認)할 것이다” 하신 예수 말씀

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7 장(第二十七章)

빌라도 앞에 서시다(막 15:1; 눅 23:1-2; 요 18:28-32)

1.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백성(百姓)의 장로(長老)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決議)하였다.
2. 그들은 예수를 결박(結縛)하여 끌고 가서, 총독(總督)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유다가 자살(自殺)하다(行 1:18-19)

3. 그 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有罪判決)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銀)돈 서른 닢을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장로(長老)들에게 돌려주고,
4. 말하였다. "내가 1)죄(罪)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罪)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相關)이요? 그대의 문제(問題)요" 하고 말하였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의(義)로운 피'
5. 유다는 그 은(銀)돈을 성전(聖殿)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6. 대제사장(大祭司長)들은 그 은(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 값이니, 성전 금고(聖殿金庫)에 넣으면 안 되오."
7. 그들은 의논(議論)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土器匠]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墓地)로 사용(使用)하기로 하였다.
8. 그 발은 오늘날까지 피발이라고 한다.
9. 그래서 예언자(豫言者) 2)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3)"그들이 은(銀)돈 서른 닢, 곧 이스라엘 자손(子孫)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 사본(寫本)에 따라 '스가랴' 또는 '이사야'속 11:12;13; 렘 19:1-13; 32:6-9
10. 그것을 주고 토기장[土器匠]이의 발을 샀으니, 주(主)님께서 내게 지시(指示)하신 그대로다."

빌라도에게 신문(訊問)을 받으시다(막 15:2-5; 눅 23:3-5; 요 18:33-38)

11. 예수께서 총독(總督) 앞에 서시니, 총독(總督)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當身)이 유대인(人)의 왕(王)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當身)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12. 예수께서는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장로(長老)들이 고발(告發)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對答)도 하지 않으셨다.
13. 그 때에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當身)에게 불리(不利)한 증언(證言)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14. 예수께서 한 마디도, 단(單) 한 가지 고발(告發)에도 대답(對答)하지 않으시니, 총독(總督)은 매우 이상(異常)히 여겼다.

사형 선고(死刑宣告)를 받으시다(막 15:6-15; 눅 23:13-25; 요 18:39-19:16)

15. 명절(名節) 때마다 총독(總督)이 무리가 원(願)하는 죄수(罪囚)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慣例)가 있었다.
16. 그런데 그 때에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所聞)난 죄수(罪囚)가 있었다.
17.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4)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 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리스어(語)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語)임. 둘 다 '기름부음 받은 사람'을 뜻함
18.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猜忌)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裁判席)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傳)하였다. "당신(當身)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關與)도 하지 마세요. 5)지난 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 그, '오늘 꿈에'
20. 그러나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장로(長老)들은 무리를 구슬려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要請)하게 하였다.
21. 총독(總督)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22. 그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十字架)에 못박으시오."
23.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正)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十字架)에 못박으시오."
24. 빌라도는, 자기(自己)로서는 어찌할 도리(道理)가 없다는 것과 또 민란(民亂)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6)이 사람의 피에 대(對)하여 책임(責任)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이 의(義)로운 피' 또는 '이 의(義)로운 사람의 피'
25. 그러자 온 백성(百姓)이 대답(對答)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子孫)에게 돌리시오."
26.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十字架)에 처형(處刑)하라고 넘겨주었다.

군인(軍人)들이 예수를 조롱(嘲弄)하다(막 15:16-20; 요 19:2-3)

27. 총독(總督)의 병사(兵士)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總督官邸)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部隊)를 다 그의 앞에 불러모았다.
28.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朱紅色)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29. 가시로 면류관(冕旒冠)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

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人)의 왕(王) 만세(萬歲)!"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戲弄)하였다.

30.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31. 이렇게 희롱(戲弄)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朱紅)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十字架)에 못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예수께서 십자가(十字架)에 못박히시다(막 15:21-32; 눅 23:26-43; 요 19:17-27)

32.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強制)로 예수의 십자가(十字架)를 지고 가게 하였다.

33. 그들은 끌고다 곧 '해골(骸骨)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34. 포도주(葡萄酒)에 쓸개를 타서, 7)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 그, '그에게'

35. 그들은 8) 예수를 십자가(十字架)에 못박고 나서, 9)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 그, '그를' 시(詩) 22:18

36.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10)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에는 절(節) 끝에 "이것은 예언자(豫言者)를 통(通)하여 '사람들이 그들끼리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다"가 첨가(添加)되어 있음

37.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人)의 왕(王)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罪牌)를 붙였다.

38. 그 때에 강도(強盜)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十字架)에 못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 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39.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侮辱)하여

40. 말하였다. "성전(聖殿)을 허물고, 사흘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나 구원(救援)하여라. 십자가(十字架)에서 내려와 보아라."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大祭司長)들도 율법학자(律法學者)들과 장로(長老)들과 함께 조롱(嘲弄)하면서 말하였다.

42. "그가 남은 구원(救援)하였으나, 자기(自己)는 구원(救援)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王)이시니, 지금(只今) 십자가(十字架)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43. 그가 하나님을 의지(依支)하였으니, 하나님이 원(願)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救援)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44. 함께 십자가(十字架)에 달린 강도(強盜)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辱)하였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막 15:33-41; 눅 23:44-49; 요 19:28-30)

45. 낮 열두 시(時)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午後) 세 시(時)까지 계속(繼續)되었다.
46. 세 시(時)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11)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 시(詩) 22:1
47.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48.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海綿)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葡萄酒)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49.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救)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12)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절(節) 끝에 '그러나 병사(兵士) 하나가 창(槍)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흘러 나왔다'(요 19:34)가 첨가(添加)되어 있음
50.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51.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聖殿揮帳)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幅)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52.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聖徒)의 몸이 살아났다.
53.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復活)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都城)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54. 백부장(百夫長)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地震)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55. 거기에는 많은 여자(女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56.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出身)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무덤에 묻히시다(막 15:42-47; 눅 23:50-56; 요 19:38-42)

57.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出身)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富者)가 왔다. 그도 역시(亦是) 예수의 제자(弟子)이다.
58.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屍身)을 내어 달라고 청(請)하니, 빌라도가 내어 주라고 명령(命令)하였다.
59.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屍身)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베로 싸서,
60.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自己)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러 놓고 갔다.
61. 거기 무덤 맞은편(便)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경비병(警備兵)이 무덤을 지키다

62. 이튿날 곧 예비일(豫備日) 다음날에, 대제사장(大祭司長)들과 바리새파(派)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물러가서
63. 말하였다. "각하(閣下), 세상(世上)을 미혹(迷惑)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自己)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記憶)하고 있습니다.
64.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命令)해 주십시오. 혹시(或是) 그의 제자(弟子)들이 와서, 시체(屍體)를 훔쳐 가고서는, 백성(百姓)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番) 속임수(數)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影響)을 미칠 것입니다."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警備兵)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재(才)주껏 지키시오."
66.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封印)하고, 경비병(警備兵)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

제 28 장(第二十八章)

예수께서 부활(復活)하시다(막 16:1-8; 눅 24:1-12; 요 20:1-10)

1. 안식일(安息日)이 지나고, 이레의 첫 날 동(東)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2.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地震)이 일어났다. 주(主)님의 한 천사(天使)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러 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3. 그 천사(天使)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4.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天使)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5. 천사(天使)가 여자(女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十字架)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6.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1)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주(主)님께서'
7.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弟子)들에게 전(傳)하기를, 그는 2)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서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뵈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가 없음
8. 여자(女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急)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消息)을 그의 제자(弟子)들에게 전(傳)하려고 달려갔다.
9.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女子)들과 마주쳐서 "평안(平安)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女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10. 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女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兄弟)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傳)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경비병(警備兵)의 보고(報告)

11. 여자(女子)들이 가는데, 경비병(警備兵) 가운데 몇 사람이 성(城)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大祭司長)들에게 보고(報告)하였다.
12. 대제사장(大祭司長)들은 장로(長老)들과 함께 모여 의논(議論)한 끝에, 병사(兵士)들에게 은(銀)돈을 많이 집어 주고
13.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弟子)들이 밤중(中)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屍體)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14. 이 소문(所聞)이 총독(總督)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害)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15.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人)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제자(弟子)들의 사명(使命)(막 16:14-18; 눅 24:36-49; 요 20:19-23; 행(行) 1:6-8)

16. 열한 제자(弟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山)에 이르렀다.
17. 그들은 예수를 뵈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疑心)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8.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權勢)를 받았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民族)을 제자(弟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聖靈)의 이름으로 3)세례(洗禮)를 주고, — 또는 '침례(浸禮)'
20. 내가 너희에게 명령(命令)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世上) 끝 날까지 항상(恒常)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4) — 다른 고대 사본(古代寫本)들은 절(節) 끝에 '아멘'이 있음

본 사이트에 사용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 허락을 받고 사용하였음.